

효성, 타이어코드·스판덱스 빛났다!

2009년 영업이익 5324억원 사상최대 ... TAC필름·아라미드섬유 투자도

효성이 불법 부동산 의혹으로 얼룩진 2009년을 사상 최대 영업이익으로 마무리했다.

효성은 2009년 매출 7조397억원, 영업이익 5324억원으로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했다고 2월11일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대비 1.6%, 영업이익은 29.7%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무려 148.5% 폭증해 3389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차입금 상환을 통해 2008년 말 148.4%에서 2009년 128.1%로 낮아졌다.

효성 관계자는 “2009년 초고압 전력기기의 해외수출이 늘었고, 세계 1위인 타이어코드는 글로벌 타이어 메이저들과 장기공급계약을 갱신했으며, 섬유부문은 스판덱스(Spandex)의 수요가 증가하고 판매가격이 상승하는 등 중공업, 산업자재, 섬유 등 핵심 사업부문이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 “수익 확대를 기반으로 초고압 변압기 공장 증설, LCD(Liquid Crystal Display) 편광판 보호용 TAC(Triacetyl Cellulose) 필름과 아라미드 섬유(Para-Aramid) 공장을 완공하는 등 기존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 성장동력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효성은 2009년 인수에 나섰다가 철회했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서는 다시 인수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11>